불자 세상보기

외국인 세 모녀가 일깨워준 시민의식



허 남 결
동국대
윤리문화학과 교수

누군가 해야 할 일이지만 아무도 선뜻 나서지 않는 일을 먼저 하는 사람들을 보면 가슴이 따뜻해진다.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는 잔잔한 감동과 함께 몸소 그렇게 할 용기가 없었던 우리 자신에 대해 부끄러운 마음을 갖는다. 어쩌면 그들은 대립과 갈등으로 얼룩진 이 세상이 그래도 여전히 살만한 곳임을 말없이 가르쳐주는 불보살님들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해본다.

지난주 SNS 이용자와 네티즌들 사이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던 외국인 세 모녀의 이야기도 그와 같은 감동을 선사해주었다. 화제의 동영상은 30대 후반 정도로 보이는 민소매 차림의 외국인 엄마가 앙증맞은 모자를 쓴 예쁜 꼬맹이와 함께 기껏해야 초등학교 저학년쯤으로 추정되는 어린 딸을 데리고 바닷가 쓰레기를 치우는 모습을 담고 있었다. 외국인 엄마는 땀을 뻘뻘 흘리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마침 부산 광안리 해변을 지나던 어느 목격자가 휴대폰으로 이 장면을 촬영했고 감동을 받은 나머지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는 과정에서 SNS와 인터넷으로 퍼져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동영상 파일 밑에 달린 댓글에는 '아이고, 이뻐라', '고사리 같은 손으로, 부끄럽네', '이런 게 제대로 된 시민의식이다', '너무 감동적이다'와 같은 쪽지들이 줄을 이었다.

당시 광안리 해수욕장 주변에는 태풍 '차바'가 몰고 온 온갖 종류의 쓰레기들로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다. 동영상에 나오는 세 모녀는 청소도구를 이용해 각종 쓰레기들을 한 곳으로 모으거나 어디론가 끌고 가고 있었다. 그런데 파도에 떠밀려온 해초류와 생활용품 따위가 뒤엉켜 흉물스러운 쓰레기를 정리하는 세 모녀의 모습이 평소에도 늘 하던 익숙한 작업인 듯 지극히 자연스럽게 보였다. 어쩌면 동영상을 본 사람들은 이처럼 꾸밈없는 장면들로부터 더 큰 감동을 받은 것인지도 모르겠다. 동영상 속의 세 모녀는 근처에 사는 동네 주민일 수도 있고 잠시 부산에 들른 외국 관광객일 수도 있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이 세 외국인 모녀의 아름다운 모습에서 우리들의 부끄러운 시민의식을 되돌아보게 된다는 사실이다.

아마도 대부분의 지역 주민들은 직접 팔을 걷어 부치고 쓰레기 청소를 해야 할 시민적 의무감을 느끼지 못했을 것이다. 그것은 당연히 관계당국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믿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섣부른 단정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고 있지 않을까? 여기서 우리

태풍 인한 광안리 쓰레기를
치우는 외국인 모녀 '귀감'
윤리적 자화상 경책에 감사

는 새삼 시민의식의 중요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50대 후반에 접어든 필자는 내 소유의 자동차를 가질 수 있을 거라곤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깨끗한 주거환경과 넘쳐나는 먹거리는 두 말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우리가 과연 민주시민의 자격을 갖춘 사람들인가를 반문해 보면 나 자신부터 대답이 궁색해지고 만다. 잦은 교통위반에다 내 집 앞의 눈치우기에도 모르는척 한 경우가 얼마나 많았던가. 곱씹어 볼수록 필자의 시민의식 점수는 바닥을 맴도는 수준임을 부인할 수 없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한국인은 공동체적인 유대감이 유달리 강한 민족이었다. 가족뿐만 아니라 이웃 간에도 서로 돕는 미풍양속의 문화를 널리 공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인가 슬그머니 자리 잡기 시작한 극단적인 이기주의가 건전한 시민의식의 형성과 실천을 거부하고 말았다. 그렇게 사는 동안 우리는 말 그대로 품격 없는 사회를 지향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지 자문자답해 볼 일이다. 그런 점에서 어린 두 딸과 함께 낯선 이국의 해변에 밀려든 쓰레기를 치우는 외국인 가족의 솔선수범은 우리의 시민의식을 거듭 일깨워 주고 있다. 그나마 위안이 되는 것은 외국인 세 모녀가 쓰레기 청소하는 모습을 보고 길을 지나던 사람들이 함께 힘을 보태 하던 작업을 마무리 했다는 점이다. 시민의식은 그렇게 조금씩 성장하는 것인가 보다. 작지만 큰 울림으로 우리들의 윤리적 자화상을 경책해 준 이름 모를 외국인 세 모녀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전하고 싶다.

기자 칼럼

천진불 행사에 19禁 노래 웬 말



윤호섭
취재부 기자

우리나라 음악계에 어느덧 '힙합(Hip Hop)'이 대세로 자리 잡았다. TV 오디션과 예능 프로그램에는 래퍼들이 대거 출연해 시청자들의 이목을 끌고, 음악차트 상위권에 힙합곡들이 즐비하다.

이를 반영하듯 불교계에서도 학인 스님들이 '쇼미 더 붓다(Show me the Buddha)'라는 주제로 랩과 비트박스 공연을 선보여 SNS상에서 많은 누리꾼들의 관심을 받기도 했다.

얼마 전, 어린이 천진불들을 위한 행사가 수도권 한 사찰서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취재차 방문했다. 왕성한 어린이법회 등을 통해 지역 어린이포교에 앞장서고 있는 이 사찰은 '행사 기획력과 규모' '사부대중의 활발한 동참'이 잘 이뤄져 포교모범도량으로도 손꼽히는 곳이었다.

이날 100여 명의 초등학생들은 조별 활동과 레크리에이션, 운동회 등을 마치고 경내 마당에서 야외활동을 하기 위해 옹기종기 모였다. 마당 곳곳에는 흥을 돋우기 위한 대형 앰프들이 설치돼 있었고, 신나는 노래들이 끊임없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한창 아이들이 뛰놀며 분위기가 무르익었을 때, 갑자기 '청소년 청취불가 판정(일명 19禁)'을 받은 힙합곡이 앰프를 타고 퍼져나갔다. 영어와 한국어로 된 욕설이 난무하는 곡이 경내를 뒤흔들었지만 다행히도 아이들은 놀이 삼매경에 빠져 인식하지 못한 듯했다. 십수 명에 달하는 지도교사들 역시 개의치 않고 행사를 이어갔다. 그 이후로도 욕설이 담긴 몇몇 곡이 나왔지만 그 누구도 문제 삼지 않는 분위기였다. 조금 더 정확히 표현하면 문제라고 인식하는 이가 없었다. 아쉬움이 남는 행사였다.

그로부터 얼마 뒤, 다른 불교계 어린이·청소년 행사 취재서도 비슷한 장면을 목격했다. 나란히 정렬된 여러 체험부스들과 행사장을 빽빽하게 채운 아이들. 그 사이를 타고 흐르는 욕설 담긴 노래는 성인과 미성년자를 갈라놓는 장벽이자 행사 취지와는 거리가 먼 이질적인 느낌이었다. 몇몇 아이들은 그 노래가 신나는지 흥얼거리며 어깨를 들썩이기도 했다. 걱정이 앞섰다.

하지만 수도권 사찰서 경험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 행사서도 노래가 딱히 문제 되진 않았다.

왜 19금 노래가 아이들 행사에서 울려 퍼지고, 이에 대해 아무도 이의제기하지 않았을까. 가장 큰 이유는 '어른들의 무지(無知)'다. 아이들에게 불교를 더욱 친숙하게 전하고, 즐길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주고자 노력했지만 정작 중요한 부분에서 눈높이를 맞추지 못한 탓이다.

음악사이트에서 '성인인증' 한 번만 해두면 더 이상의 절차가 없어 무심코 선곡했을 수도 있고, 딱히 가사를 음미하지 않으며 들어왔기에 욕설이 있다는 걸 몰랐을 수도 있다. 게다가 이런 노래는 번화가에 즐비한 가게 앞에, 그리고 식당 앞에서 누구나 흔히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문제로 받아들이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그렇다하더라도 천진한 아이들을 위한 행사이기에 더욱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였어야만 한다.

'깨어있음'을 강조하는 불교. 내 행동 하나하나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팔정도(八正道)를 실천하면서 무상정등각(無上正等覺)을 향해 나아가는 종교다. 하지만 앞서 목격한 행사는 결코 '깨어있음'과 가깝지 못한 어른들의 부끄러운 민낯이다.

세상 모든 것이 새롭고 신기하기만 한 아이들에겐 어른 한 명이 저지른 사소한 잘못도 적잖은 영향을 미친다. 자식(子息). 한자의 연원을 따져보면 다른 의미가 담겨있을 수 있겠지만 식(息)은 '숨 쉬다'라는 뜻이다. 부모로부터 숨을 받아 세상과 호흡하는 아이들이지 않은가. 우리는 지금보다 조금 더, 아이들에게 신경 써야 한다.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니까.

社說

취약매체인 종교방송 보호해야

불교방송을 비롯한 종교방송계의 광고매출이 급감했다는 소식이 들려온다. 방통위 국정감사 현장에서 나온 소리다. 이는 미디어렙법 제정 당시부터 우려됐던 부분이다. 현행 제도는 1공영 다민영 미디어렙 체제로 이런 구조에서는 경쟁이 심화될 수 밖에 없다. 방송사간 과다경쟁은 초기에 시장의 확대를 가져올 지라도 경제규모의 성장이 뒷받침 되지 않는 한 장기적으로 지속되기 어렵다.

방통위의 자료만 보더라도 그 여파는 극명히 드러난다. 종편이 각기 세운 미디어렙의 매출이 증가하며, 기존 공민영미디어렙의 매출이 감소하고 있다. 이런 결과가 공영미디어렙에 속해 있는 종교방송의 매출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광고 시장에서의 경쟁 심화는 시청율 경쟁으로 방송환경을 조성하고, 이에 자연적으로 공공성을 지닌 방송은 점차 사라지게 된다. 특히 편성의 60% 이상을 종교적 내용으로 하는 의무를 지니는 종교방송의 경우 이런 영향을 더욱 크게 받는다. 이제는 정부에서 공민영 미디어렙 간 공익적 시스템 운영에 대해 고민할 때가 왔다.

종편이 흑자전환에 성공하고 있는 지금이 취약 매체인 종교방송과 지역방송에 대한 지원과 공정거래 환경의 정착을 이끌 시기인 것이다. 이와 함께 불교계 내부적으로는 불교계 방송의 광고 매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대대적인 후원과 함께 신도 중심의 지원체계 마련도 고심해야 할 것이다.

종교는 우리사회에서 정신문화 큰 축을 차지하고 있다. 종교방송의 역할은 각자의 종교를 선교·포교하는 것 뿐만 아니라 현대인들의 심성완화 등의 공공목적도 지니고 있다. 급변하는 방송환경,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이러한 공공성을 보호하는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水魔 피해지역에 관심과 자비를

가을의 문턱에서 찾아온 태풍 차바는 경상도 지역에 많은 피해를 안겼다. 피해금액도 어마어마하다.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울산의 태풍 피해액은 1930억 원으로 장점 집계됐으며, 직접적인 영향권에 있었던 제주도는 300억 원정도로 추산된다.

수마가 휩쓸고 간 자리에는 좌절과 원망만이 남는다. 그래도 한국사회에 온정은 식지 않았다. 가장 큰 피해지역인 전국에서 몰려든 자원봉사자는 5만 5000명을 넘었고, 모금액은 56억 원을 넘어섰다.

사찰들의 자비행도 이어지고 있다. 태풍 직후 10월 6~8일 한마음선원 울산 지원 신도 50여명은 수해 피해 가정을 방문해 정리 및 청소 등 봉사활동을 펼쳤다. 9~15일은 매일 새벽 공양을 준비했다고 한다.

이 같이 훈훈한 미담들도 이어지지만 복구와 지원의 사각지대가 있다. 당장 상가가 등 사유시설은 국가 차원의 보상과 지원이 어렵다.

'9.12 지진'에 이어 태풍 피해까지 입은 경주 지역의 사정도 힘들다. 경주 관음사의 경우 지진 피해에 이어 수해 피해를 입었음에도 제대로 된 보상과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문화재 시설과 일반 한옥가옥들도 전문 인력들이 모자라 복구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

피해 지역 주민에게는 당장 물질적 지원도 중요하지만,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심적 안정감도 필요하다. 불교계가 나서야 할 것은 피해지역 주민들의 수마에게 할퀸 상처를 보듬는 일이다. 〈유마경〉에서 유마 거사는 "중생이 아프면 나도 아프다"고 했다. '중생과 보살은 한 몸'이라는 말이다. 서로의 아픔을 보듬을 수 있도록 불교계의 관심과 자비가 필요하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발행인 : 혜원 편집인 : 혜도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 구 지 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전 북 지 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 주 지 국 : (054)634-3429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하기책자 5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命
(명)
글쓴이 : 혜천법사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 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20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전생의 빚을 소멸시켜 자신의 운명을 바뀌게 하는"

생전예수재기도의 중요성과 그 성취효과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생전예수재는 "왜" 필히 지내야만 하는가?
② 생전예수재 신청 및 집에서 기도하는 방법
③ 생전예수재 기도후 일어난 영험사례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345-4 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768-8413

지리산 다슬기 眞 골드

지리산과 덕유산 일대의 자연다슬기와 국내산 약재로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선조들의 지혜가 듬뿍 담겨 있는 지리산 다슬기 진 골드로
생활의 활력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신장과 시력보호에 탁월한 효과를 지닌 다슬기를 주 재료로 하여 맑은 지리산 계곡물과 함께 각종 약재를 함께 넣어서 정성껏 달였습니다. 장시간 책을 많이 보시는 분들과 수행에 지친 분들께 원기를 복돋아 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선물 입니다.

제품문의 : 02) 879-2007
입금안내 : 농협 1282-17-003433 (주) 한메소프트
입금금액 : 125,000원 (무료배송)